

오늘부터 모든 PC방 'QR코드' 적용

광주시,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K-PASS' 운영

33번 확진자 8시간 머물러…2/3 신원파악 어려워

광주 33번 확진자가 PC방에 장시간 머문 것으로 확인되자 광주시가 22일부터 모든 PC방을 대상으로 '전자 출입 명부제(K-PASS)'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1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생한 광주 33 번째 환자 발생을 계기로 22일부터 모든 PC방에서 '전자출입명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클리닉 △헌팅포차 △단란주점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출입 때 1회용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날 광주 33번 확진자로 분류된 A씨(20·북구 일곡동)가 광주 북구 일곡동 '이안PC카페'에 19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

전 7시까지 8시간 가량 머무른 것으로 파악되면서 PC방 명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기준 확진자들의 이동경로에서 PC방 방문이 자주 확인되고 있고,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밀집돼 활동한다는 PC방의 특성을 고려해 PC방을 고위험시설로 규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광주 33번 확진자가 이용한 PC방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자로 확인된 193명 중 64명만 신원이 확인됐다. 회원명부 2/3 이상인 129명

의 신원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회원명부가 정확하지 않아 경찰청에 신원확인 협조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PC방 이용자 중·고등학생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돼 광주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 학생 전체에 문자 발송을 해서 해당 PC방 이용 학생을 파악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대전 50, 55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 대에 음식점을 방문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인호 기자

한국노총 전남본부 노동절기념대회

근로자 250여명 참여·노동의 숭고한 의미 되새겨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는 코로나19로 인해 치루지 못한 제130주년 세계 노동절대회를 지난 20일 화순도곡 원네스&리조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초 600여명이 참석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지역별로 분산 개최키로 하여 당일 250명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체 행사로 노동절 기념대회를

가졌다.

이신원 의장은 기념사에서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불안전한 고용, 위험한 작업장, 과도한 업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매년 작업현장에서 9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이재해를 당하고 이중 2천여명이 신재로 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절을 앞둔 지난 4월 29일 이천물류창고에서 화재 참

화순=박순철 기자

사로 38명의 희생자들 역시 임시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라면서 "정부는 위험, 위해사업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중대한 산업재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염중히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위험한 작업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저녁이 있는 삶을 사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와치고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

참가자 일들은 제130주년 세계 노동절 공동선언문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주권 보장을 요구하고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며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은 연결되어 있음을 직시하고 국내외 노동, 시민단체와의 현대화와 협력을 공고히 하여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절을 앞둔 지난 4월 29일 이천물류창고에서 화재 참



김양숙 한국철도 전남본부장(왼쪽에서 2번째)이 객차 냉방장치 정비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철도 전남본부 무더위 대비 객차 냉방장치 특별점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남본부는 최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객차 냉방장치 정비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금번 특별점검은 본부정과 차장과 비롯한 차량분야 직원들이 점검반을 구성하여 여수차량사업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객차 냉방장치에 대한 정비실태를 확인·점검함으로서 냉방장치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다.

특히, 현장에서 정비 중인 냉매회수 및 충전, 배관 누설여부, 객실 내 응결수 유입여부 등을 세심히 확인함으로서 여름철 냉방장치 고장으로 인한 고객불편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

객차 냉방설비를 직접 점검한 김양숙 전남본부장은 직원들에게 "여름철 고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객차 냉방설비 정상 가능 확보와 코로나19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고객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도,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900개소 추가 구축

전남도는 올해 국비 18억 원을 들여 도내 공공장소 900개소에 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하고 본격 서비스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무료 와이파이 설치는 전남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난해 공공장소에 470개

소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까지 총 137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축한 와이파이는 도내 버스정류장, 보건지소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에 설치됐으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도는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도입, 해킹과 도청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중요해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와 디지털 소통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환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작장내 고통함 금지 범위가 명확화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정승인공고

사건 번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느단290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 남정숙 (550509-2581310)
최후주소 : 순천시 덕월2길 35, 가동 214호(덕월동, 신보아파트)
등록기준지 : 순천시 옥천길 131

위 망 남정숙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0년 6월 22일

공고인 : 방지수, 유지호, 유민.
주 소 : 순천시 중앙초등길 132, 2동 804호(풍덕동, 한신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20년 6월 15일
공고기간 : 2020. 6. 22 ~ 2020. 8. 22

한정승인공고

사건 번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느단291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 최혁수 (650206-1634610)
최후주소 : 순천시 덕월길 22, 106동 1405호(덕월동, 우성아파트)
등록기준지 : 순천시 월등면 동곡길 1의 4

위 망 최혁수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0년 6월 22일

공고인 : 신정숙, 최설.
주 소 : 순천시 덕월길 22, 106동 1405호(덕월동, 우성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20년 6월 11일
공고기간 : 2020. 6. 22 ~ 2020. 8. 22

동구,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광주 동구가 대인·남광주·산수·남광주해뜨는시장 등 4개 전통시장 약 550여개 점포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화재알림 설치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화재알림시설 설치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4억4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동구는 전통시장 점포와 공용부분에 불꽃·연기·열 등을 감지하는 지능형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해 화재발생 시 관할소방서와 상인들에게 신속하게 통보하는 등 조기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자동통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구, 아동권리 감수성 향상 부모교육 실시

광주 서구는 지난 16, 17일 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드림스타트 아동의 부모 및 양육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인권에 대해 함께 배우고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드림스타트 부모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태도와 방식에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마련됐다.

'아동권리 감수성 향상'을 주제로한 이번 교육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옹호센터 팀장인 변정랑 강사의 특강으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남구, 이면도로 등 쓰레기 골칫거리 해결사 뜯다

광주 남구는 오는 7월부터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빌터와 주택이 이면도로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동네 청결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우리동네 청결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소외계층의 생활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 안정형 긴급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칫거리인 쓰레기 투기 지역에 대한 도시미관 개선 목적으로 추진된다.

남구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광주시에서 실시한 '코로나 대응 생활형 공공 일자리 사업'에 함께 할 관내 주민들을 모집했다.

북구, 국가 재난관리 유공 기관 선정 대통령 표창

광주 북구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재난안전 도시로 인정받았다.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325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11개 재난관리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국가 재난관리 유공' 심사 결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재난관리 유공 평가는 1965년 '수해대책 유공'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55년 동안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재해·재난관리에 공적이 있는 유공기관을 발굴해 표창을 수여한다.

북구는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 만족도△창조적 기여도 △업적도 등 11개 심사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북구는 지난해 재난안전 예산을 200% 이상 증액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도시의 기반을 마련했다.

광산구, 사회적 돌봄 해법 찾기 마을이슈포럼 개최

광주 광산구가 '2020광산마을이슈포럼'을 24일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일련의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의 사회적 돌봄 문제를 진단하고, 코로나 이후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

포럼은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대표의 주제 빌제 '코로나19 돌봄 대란, 우리에게 남긴 과제'로 문을 연다. 이어 충북 옥천군의 이연희 '쯤 노는 아이들' 대표가 '신기한 마을학교 민관협력 마을 돌봄'을 제목으로 사례발표에 나선다.

임형택 기자

